‘5월 정신’의 미래·세계화 이끌어온 두 바퀴

〈목 차〉

제1부 되짚어 본 5·18
제2부 민주·인권의 가교
제3부 긍정에너지로 승화

오월을 넘어 광주를 넘어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심층 기획

⑦ 5·18 기념재단과 전남대 5·18연구소

기념재단, 교육·다양한 국제 연대사업 펼쳐

5·18연구소, 자료 발굴·체계화… 학술 연구

5·18 기념재단 관계자들이 1994년 8월 30일 창립 총회를 열고 ‘5·18 정신’의 계승·발전을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5·18 민중항쟁’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이자 정점으로 우뚝 서있다. 또 5·18은 ‘5월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시민들과 사회단체 등의 노력에 의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30년 전 독재에 맞서 싸운 ‘광주의 정신’이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5·18 기념재단’과 ‘전남대 5·18연구소’는 ‘5·18 정신’의 현대화와 미래화를 도모하는 두 축을 담당하고 있다.

‘기념재단’은 5·18 진상규명과 ‘5월 정신’의 계승 활동 등을 목표로 지난 1994년 8월 30일 설립됐다. 재단 설립의 모태는 국민성금과 5·18 관련 피해자들이 내놓은 보상금 등 3억7천만원으로 꾸려졌다.

재단은 설립 후 5·18 진상규명 운동과 교육 및 장학 사업, 5·18정신 계승 활동 등을 추진해왔다. 1998년 5월 광주시가 ‘(재)5·18기념재단 기본재산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도 재단 활동에 버팀목이 됐다. 조례를 통해 재단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각종 재단의 활동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재단의 설립에는 ‘5월 정신’을 통합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구를 만들겠다는 5·18 단체들의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5월 단체들은 1998년 ‘5·18 학살자 처벌을 위한 광주·전남공동위원회’의 활동 성과를 재단 측에 위임하는 등 재단이 ‘5·18 대표 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힘을 실어줬다.

재단은 현재 청소년에 대한 교육사업과 공교육 현장에서의 각종 자료 개발 등을 통해 5·18 이후 세대에 ‘5월 정신’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각종 5월 관련 자료 정리를 통해 5월 당시의 참혹상과 5·18의 의미, 5·18의 미래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재단은 특히 2000년부터 ‘5월 정신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데 팔을 걷어 부쳤다. 재단은 ▲국제평화캠프 ▲아시아 인권학교 ▲아시아 인권 광주포럼 ▲국제 인턴 채용 ▲국제 인턴 파견 등 다양한 국제 연대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 재단이 매년 세계적 인권지도자나 단체를 대상으로 수상하는 ‘광주인권상’은 2000년 시행 후 국제적인 권위를 가진 상으로 정착됐다.

‘전남대 5·18 연구소’는 5·18의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승화시키는 다양한 학술 및 연구 형태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6년 12월 전남대학교 부설 연구소로 설립된 뒤 5월 관련 자료 발굴 및 재조명 연구 등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학문적으로 정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설립 초기에는 5·18 관련 자료 발굴 및 재조명에 초점을 맞췄으나 점차 한국의 민주주의, 동아시아와 제3 세계의 민주주의,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등으로까지 연구의 폭을 넓히고 있다. 30년 전 태동한 ‘5월 정신’이 광주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인 인권의 모델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소는 다양한 5·18 관련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및 출판과 함께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5월 관련 학술행사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0년부터는 ‘아시아의 인권과 평화’라는 주제로 매년 5월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5월 정신’을 통한 국제적인 학술교류에도 힘을 쏟고 있다.

또 2001년부터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란 학술지를 발행하는 한편, 2005년에는 5·18 관련 교양과목을 개설하는 등 5·18 기념재단과 함께 ‘5월 정신’의 계승 사업을 펴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5·18기념재단 창립 선언문

광주가 다시 섰습니다. 5월이 다시 섰습니다.

위대한 항쟁정신과 숭고한 대동정신을 기념하고 계승·발전시켜 조국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재)5·18기념재단’이 창립되었습니다. 그동안 항쟁정신의 기념과 계승에 비해 게을렀던 대동정신의 기념과 계승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재)5·18기념재단’이 어려운 준비 과정을 거쳐 마침내 창립되었습니다.

5월은 명예가 아니고 멍에이며, 채권도 이권도 아니고 채무이고, 희생이고 봉사입니다. 5월은 광주의 것도, 구속자, 부상자, 유가족의 것도 아니고 조국의 것이고 전체 시민과 민족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또한 5월이 광주의 5월로 올바로 서야 진정한 전국화, 세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각계의 시민들과 5월 민중항쟁 관련 구속자, 부상자, 유가족들이 함께 힘을 모아 기념사업, 장학사업, 학술·연구·문화사업, 홍보·출판사업, 자선·복지사업, 5월 정신 실천자들에 대한 시상사업을 해 나갈 ‘(재)5·18기념재단’을 마침내 창립하였습니다.

서른살의 5·18에게

조진태

“5·18의 숭고한 희생과 가치 가르치고 배울 제도적 장치 필요”

오월의 고통은 아직 상존한다.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여전하다. 밝혀진 것은 밝혀진 것대로 미진한 것은 미진한 것대로 낱낱이 가르고 나눠서 역사화하고 있는 ‘오월’의 새로운 의제를 설정해야 한다.

피해당사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도 국가는 더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한다. 오월 문제 해결의 5원칙을 종합적으로 평가 점검해보고 오월정신계승의 새로운 담론을 제시할 때이기도 하다.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일군 자긍심은 오월정신의 현재화와 미래화로 나아가야 한다. 오월정신의 현재화는 교육적 가치로 재정립되어 청소년과 시민에게 학습돼도록 해야 하는 데 그것은 무엇보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교과과정이 필요하고 시민사회에서는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 전달도 필요하겠지만 오월의 숭고한 가치를 현재화하여 인류 보편의 정신적 유산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민주 인권 평화로 일컬어지는 오월정신이 전시적 구호가 아니라 오월 정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자리매김 되려면 안정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이다.

오월 정신의 미래화는 이러한 조건을 토대로 해서 제 모습을 가질 것인데 그것은 문화적 품격이 요구된다. 오월정신의 문화적 원형은 당시 현장에서 수도 없이 발견할 수가 있다.

학살의 현장에서 비장하게 불렀던 아리랑과 애국가는 극한의 절망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지키고자 저항했던 사람들의 인간적 감성의 산물이다. 헌혈과 주먹밥은 도시에서도 서로를 ‘서로이게’ 하면서 함께 살고자 하는 공동체의 원형이 무엇인가를 실험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이러한 오월의 원형들이 문화적 컨텐츠로 재구성되어야 미래의 어떤 사회적 양상들과 만날 수 있다. 디지털의 힘은 손때묻은 ‘사람 살이’의 이야기에서 탄생한다.

이것이 서른 살이 된 오월이 2010년 세대와 만나고 다음 세대와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며 광주의 자긍심을 미래로 이어가는 길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지난하게 일궈온 오월운동의 역사적 성과를 정리하고 종합하여 과거청산의 하나의 모델로서 세계인류에게 던질 필요가 있다. 특히 아시아 각국에게는 귀중한 역사적 사례가 될 것이다. 아시아 각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운동의 소통과 연대에 오월이 그 역할을 한 단계 끌어올릴 때가 되었다. 미래의 아시아 정신으로 거듭 승화될 수 있는 기초를 닦는 일일 것이다.

이제 오월은 30년이 된 만큼, 그리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을 품고 있는 만큼, 성년의 성찰적 품격을 갖추고서 당면한 상황과 대면할 때가 되었다.

외면과 냉소는 왜곡과 폄훼를 일삼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과 같다. 오월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더 많이 노력하고 매진해야겠다는 다짐 외에 달리 각오를 밝히기가 송구할 따름이다. 〈5·18기념재단 사무처장〉